

한국 정토사상의 특색

한태식(보광)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정토교의 전래
- III. 정토삼부경 중심 연구
- IV. 48대원 중시
- V. 唯心淨土 강조
- VI. 맺음말

* 동국대 서울캠퍼스 선학과 교수.

I. 머리말

우리나라에 정토신앙이 전래된 것은 고구려에서부터 시작되어 백제 신라의 순서로 신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명확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시의 아미타불상을 보고 추정할 뿐이다. 그리고 사상적인 연구는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연구되었다. 7세기경에 慈藏은 『阿彌陀經疏』를 저술하였으며, 원광, 원효 등 수많은 정토저술가들이 나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정토사상의 특징적인 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하므로 신앙적인 측면이나, 수행, 문화적인 면은 생략하고자 한다.

한국정토사상의 특색에 대하여 일본의 惠谷隆戒교수와 源弘之교수는 몇 가지로 구분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분들의 논문에는 한국과 한국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가보니 다소의 오해가 있었다. 그들의 연구는 현존하고 있는 자료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므로 한국불교의 저변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정토사상의 특성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토삼부경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솔직히 말하여 한국불교의 교학적인 연구는 대부분 신라시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九山禪門이 성립된 이후인 고려시대 부터는 禪宗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부분적으로는 화엄이나 천태학이 연구되었으나 거의 선불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토교학의 중심인 정토삼부경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시대의 정토사상이 곧 한국정토사상의 주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둘째는 고려 이후의 정토사상은 唯心淨土 중심으로 연구 수행되어 왔다. 정토교학은 선수행의 한 방편으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指方立相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상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유심정토론적이며, 수행적으로는 念佛禪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는 한국에 있어서 정토사상과 수행, 신앙이 널리 유통되었지만, 한 종파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그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설이 있지만, 한국불교는 중국이나 일본의 종파불교적인 성격이 아니라 통불교적인 경향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하다보니 정토교학은 淨土宗을 형성하지 않았지만, 한국불교의 모든 종파에 정토사상이 흡수되어 있다. 즉 한국불교에서 정토교학과 수행, 신앙은 모든 종파에 관계없이 확산되어 불교전반에서 신봉되었기 때문에 종파성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 따라서 한국불교에서 정토사상의 중심사상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아미타불의 타방정토인 극락정토를 중심으로 한국적인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토교의 전래

일반적으로 정토교학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뜻이 광활하다. 즉 서방정토를 중심으로 하는 타방정토사상과, 유심정토적인 사상도 포함되며, 현세적으로 이해하는 영험정토를 의미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타방정토에 대해서도 대승불교에서는十方세계의 모든 곳에

1)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74

정토의 이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계에 지방부처님의 세계를 모두 정토라고 한다. 즉 동방 만월세계에는 약사유리광불이 있으며, 서방 정토에는 아미타불, 남방에는 대원본존 지장보살, 북방 무우세계 등에도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

한편 서방정토에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이 미륵정토의 세계이다. 미륵정토는 용화세계라고 하여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미륵사상은 미륵상생과 하생의 세계로 나누어지며, 彌勒上生은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정토로 가자는 것이고, 下生은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하강하신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륵하생사상은 현 세적이면서 미래를 지향하다가 보니 새로운 국가건설을 주창할 때 이용당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미륵불의 후신이라고 하면서 혁명을 주도하거나 새로운 왕조건설의 이념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千年王國說의 중심사상으로 대두된 적도 허다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미륵정토에 대한 것은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한국정토교학의 시작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에 불교가 소수림왕 2년(372)에 前秦으로부터 전래되었다. 이 때 前秦의 불교는 白蓮結社의 창시자였던 東林寺 慧遠법사의 스승인 道安 등에 의해서도 크게 번창하였다. 따라서 아미타불 정토신앙도 널리 유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헌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에도 정토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신앙의 자료로는 황해도 谷山에서 출토된 「辛卯銘金銅三尊佛」²⁾이 있다. 이 명문에 의하면, 고구려 平原王13년(571)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량수불 일구를 돌아가신 스승과 부모를 위하여 비구와 재가자, 노비 등 5인이 힘을 합쳐서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미륵정토에 태어나길 발원하고 있다. 즉 불상은 아미타불을 조성

2) 황수영 편,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76) p.239

하면서 발원은 미륵정토로 상생하기를 발원하고 있으니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마도 초기에는 미타신앙과 미륵신앙이 혼재하였던 것 같다.³⁾

그 외에도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6년(666)에 고구려의 淵淨土가 신라에 투항해서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⁴⁾ 대표적인 고구려의 명문가였던 연개소문의 동생 이름이 淨土라고 사용한 것은 고구려 사회에서는 淨土가 일반화 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토교의 수용은 백제에서도 마찬가지로 枕流王 원년(382)에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는 東晋과의 교류가 빈번하였으므로 당시 廬山 慧遠이 東林寺에 정토염불결사체인 白蓮結社를 402년에 시작하였으므로 이 영향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그러나 교학적인 연구에 대한 것은 자세한 기록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백제지역인 충남 연기군 지방의 碑巖寺에서 발견된 「癸酉銘阿彌陀佛三尊四面石像」과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이 있다.⁶⁾ 이를 분석한 결과 癸酉銘 아미타불은 백제의 유민들에 의해 673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己丑銘은 689년 경의 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⁷⁾

신라불교의 전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인 된 것은 법흥왕 14년(527)이다. 신라는 梁나라와 교류가 있었으므로 양나라의 불교적인 영향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 眞興王 26년(565)에는 陳으로부터 사신 劉思와 승려 明觀이 파견되어 오면서 불교경론 1700여권을 가져왔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⁸⁾ 모르긴 해도 아마도 이때 정토관련 경론도 함께

3)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 (大阪 東方出版, 1991) p.14

4)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6년 12월조

5) 『高僧傳』 권6 釋慧遠(대정장50, 357-361)

6) 黃壽永 著,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1973) pp.136-174

7)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 (大阪 東方出版, 1991) p.25

왔으며, 신라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Ⅲ. 정토삼부경 중심 연구

신라에서 정토교학의 연구에 대한 기록으로는 慈藏(608-677)이 『阿彌陀經疏』 혹은 『阿彌陀經義記』를 지었다는 것이 최초이다. 이에 대한 기록으로는 일본의 永超의 『東域傳燈目錄』이나 興隆의 『佛典疏鈔目錄』에 보이고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¹⁰⁾

중국에서 정토교학은 7, 8세기경에 최전성기를 맞이하여 발전을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에 접어들면서 중국에 못지않게 교학적인 연구가 진척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가지의 특정한 교학이나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대승불교학의 자유롭게 섭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토교학의 연구자들도 정토교학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유식, 반야, 여래장, 화엄 등의 다양한 대승불교학의 기반위에서 정토학을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라 독자의 교학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¹¹⁾

이 당시에 중국의 정토교학자들은 法常, 道綽, 迦才, 慧淨, 道闇, 善導, 窺基, 龍興, 靖邁, 懷感, 慧日, 法照 등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신라에서도 慈藏, 圓測, 元曉, 法位, 義湘, 憬興, 遁倫, 義寂, 玄一, 太賢 등

8) 『三國史記』 권4 眞興王 條 26년

9) 김영태, 「삼국시대 미타신앙의 수용과 그 전개」, 『한국정토사상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5), p.36

10) 상동 p.35.

김영태, 「日本諸錄中の 韓國佛教撰述書目」, 『佛教學報』 1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6)

11) 채인환, 「신라시대의 정토교학」, 『한국정토사상연구』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85) p.86

의 석학들이 출현되었다.¹²⁾

신라시대 정토교학자들의 연구업적은 대단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正倉院文書』·『義天錄』·『永超錄』·『東域錄』·『長西錄』·『玄智錄』·『安養集』 등의 목록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중에서도 대부분은 일본측의 목록에 속한다. 이러한 목록에 의하면 같은 이름이 변형되어 중복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장이 『아미타경소』 등 2부, 원측 『무량수경소』 『아미타경소』 2부, 원효 『무량수경중요』 『아미타경소』 『관경중요』 『반주삼매경소』 등 10부, 의상 『아미타경의기』 1부, 범위 『무량수경소』 『아미타경의소』 3부, 의적 『무량수경술의기』 『관무량수경강요』 5부, 현일 『무량수경기』 『관무량수경기』 『아미타경소』 『隨願往生經記』 4부, 경흥 『무량수경연의술문찬』 『관무량수경소』 『아미타경약기』 4부, 둔륜 『아미타경소』 1부, 도증 『西方極樂要讚』 1부, 태현 『무량수경고적기』 『관무량수경고적기』 『아미타경고적기』 『稱讚淨土經古迹記』 『淨土總料簡』 5부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원효의 이름을 假託하였으나 실지로는 저자미상의 『遊心安樂道』 등이 있다.¹³⁾

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정토삼부경인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에 대한 주석서이며, 『반주삼매경』에 대한 연구는 원효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학자들이 구마라습의 『아미타경』을 주석하였으나 太賢은 玄奘 번역의 『稱讚淨土佛攝受經』도 주석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삼부경 이외의 정토사상 전반을 정리한 것으로는 『遊心安樂道』와 『西方淨土要讚』 『淨土總要簡』 만이 보인다.

따라서 신라정토교학적인 특색은 정토삼부경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중국과 같이 정토사상을 총망라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

12) 惠谷隆戒, 『淨土教の新研究』 (山喜房佛書林, 昭和51) p.55

한보광, 『新羅淨土思想の研究』 (大阪 東方出版, 1991) p.65

13)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 (大阪 東方出版, 1991) p.68

인다. 이 중에서도 삼부경이외의 저술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로는 『유심안락도』인데 이에 대한 찬술자의 眞僞여부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원효로 알려져 있지만, 원효의 입적이후에 저술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정설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惠谷隆戒교수는 신라정토교의 특색에서 두 가지 계통이 있다고 하였다.¹⁴⁾ 즉 淨影寺 慧遠系와 玄奘, 慈恩窺基系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장, 원효, 의상, 의적, 법위로 나누고, 후자는 원측, 경홍, 태현, 둔륜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설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정영사 혜원류나 현장 자은류의 정토교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신라 정토가들은 모두 유식학이나 여래장을 기초로 하여 사상적인 전개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토교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연구의 일환에서 정토관련저술이 포함된 것이다.¹⁵⁾

다음으로 에다니 뉴가이(惠谷隆戒) 교수는 「韓國淨土教の特性」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7, 8세기경의 중국정토교는 『관무량수경』을 중심한 정토교인데 반하여 한국은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 중심의 정토교로서 『관무량수경』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 특성이다.¹⁶⁾

그런데 여기서 에다니교수의 학설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정토교가들의 주석서가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관무량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논한바와 같이 거의 모든 저술가들은 『관무량

14) 惠谷隆戒, 『淨土教の新研究』(山喜房佛書林, 昭和51) p.55

15)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72

16) 惠谷隆戒, 「韓國淨土教の特性」, 『印度學佛教學研究』 24집 2호 (印佛學會, 昭和51) p.1

수경』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들의 『관무량수경』에 관한 주석서가 오늘날 산실되어 현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적인 연구를 진척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이다. 신라 정토가들의 목록에 의하면, 범위의 『관무량수경소』 2권, 경흥의 『관무량수경소』 2권, 의적의 『관무량수경소』와 『관무량수경강요』, 현일의 『관무량수경기』, 태현의 『관무량수경고적기』 1권이 있었다는 서명이 보인다.¹⁷⁾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효에게 『觀經宗要』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일반적인 목록에서는 원효의 『관무량수경』 주석서의 목록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1070년경에 源隆國에 의해 찬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安養集』의 3, 9, 10권의 3군데에서 「觀經宗要 元曉云」이라고 하면서 인용문을 전개하고 있다.¹⁸⁾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과제가 남겨져 있다.

현존하고 있는 주석서로는 원효의 『무량수경종요』 1권, 『아미타경소』 1권, 『彌陀證性偈』 1편과 경흥의 『무량수경연의술문찬』 3권, 현일의 『무량수경기』(잔권 1권), 범위의 『무량수경의소』(복원본) 2권, 의적의 『무량수경술의기』(복원본) 3권이 있으며, 저자미상의 『유심안락도』 1권이 있다.¹⁹⁾

따라서 신라 정토교가들은 정토삼부경에 대하여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 등 한 두 가지 경전의 연구에만 치중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효는 『반주삼경』의 주석서까지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다니교수의 이러한 오해는 현존하는 주석서 가운데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의 주석서만 남아 있기 때문이지, 결코 『관무량수경』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73

18)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127 註21번
佐藤哲英 著, 『叡山淨土教の研究』(百華苑, 昭和 54) p.452

19)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73

한국에서의 정토교 경전의 연구와 역할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량수경』은 정토사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연구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관무량수경』은 정토수행에 필요한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선종에서도 5조 홍인대사는 『관무량수경』의 주석서를 찬술하였으며, 이것이 결국 祖師禪 성립과 수행방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아미타경』은 정토신앙을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이경전은 『무량수경』에 비하여 분량이 짧으면서도 정토사상과 수행 및 신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불자나 승가에서 널리 애송된 경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토신앙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주삼매경』은 염불결사의 소의경전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여산혜원은 402년 東晉의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결사를 시작하면서 『반주삼매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다. 그는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見佛三昧를 주창하였다. 『반주삼매경』은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효는 『반주삼매경소』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万日念佛結社라고 하는 신앙결사가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애석한 점은 신라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토삼부경에 대한 주석서가 없다는 점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많은 선지식들은 구체적인 주석서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은 정토는 禪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정토삼부경에 관한 연구나 분석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函虛得通禪師(1376~1433)는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의 정토삼부경을 중심한 讚文을 짓고 있다. 물론 정토에 대한 찬문만을 지은 것은 아니다. 그는 『원각경』²⁰⁾과 『법화경』²¹⁾의 각품에 대해서도 찬문을 歌頌의 형태

20) 『函虛堂得通和尚語錄』 (한불전7, 237,하)

21) 상 동 (한불전7, 238,중)

로 남겼다. 교학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한구절의 계송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일은 교학적으로 해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 대한 찬탄문을 지었으며, 『般若歌』²²⁾ 등의 歌頌도 지었다.

그 중에서 정토삼부경에 대한 讚文을 지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미타찬, 「안양찬, 「미타경찬」 등이 있다. 그는 정토에 대하여 단순히 신앙적으로 수행의 한 방편으로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정토사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彌陀讚」²³⁾은 從眞起化, 隨機現相, 觀相生信, 聞名應化, 暫稱皆益, 功小益大, 隨機普接, 超方獨尊, 勸念功高, 高超圓證 등의 제목으로 계송을 읊고 있는데, 이는 모두 아미타불의 正報莊嚴을 찬탄하는 노래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安養讚」²⁴⁾은 彼此同化, 依正俱勝, 純樂無憂, 修體莊嚴, 花池受生, 十方遊行, 聞音進修, 長壽等佛, 因友進道, 念佛蒙化 등의 계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극락정토의 依報莊嚴을 찬탄하고 있다.

또한 「彌陀經讚」²⁵⁾도 十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開示捷徑, 指途迷倫, 讚土令忻, 讚佛勸念, 六方同讚, 彼土相接, 人天共尊, 現未俱益, 易發機感, 普念回向 등으로 『아미타경』 내용을 요약하여 아미타불과 극락정토 및 염불공덕을 찬탄하고 있다.

22) 상 동 (한불전7, 240, 중)

23) 상 동 (한불전7, 241, 하-242, 중)

24) 상 동 (한불전7, 242, 중-243, 중)

25) 상 동 (한불전7, 243, 중-244, 상)

IV. 48대원 중시

신라정토사상의 특색 중 하나는 48대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라 정토교가들은 48대원에 대하여 최초로 願名을 분류하고 願名에 호칭을 붙였다. 뿐만 아니라 48대원 중에서도 특히 제18원과 제19원, 제20원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제18원의 十念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아미타불의 극락국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장보살의 원력이다. 그것을 정리하여 체계화 시키고, 구체화한 것이 바로 48대원이다. 만약 법장보살이 극락국토 건설의 원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서방정토극락세계는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토교학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48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토삼부경 중에서도 아미타불의 48대원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는 『무량수경』이다. 그러나 이 48대원이 처음부터 48가지로 분류되었던 것은 아니다. 각 번역가들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되었다.

- ① 支婁迦讖이 번역한 『無量清淨平等覺經』에서는 24원으로 되었음.
- ② 支謙이 번역한 『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에서는 24원으로 되었음.
- ③ 康僧鎧가 번역한 『無量壽經』에서는 48원으로 되었음.
- ④ 菩提流支가 번역한 『無量壽如來會』에서는 48원으로 되었음.
- ⑤ 法賢이 번역한 『無量壽莊嚴經』에서는 36원으로 되었음.
- ⑥ 산스크리트 본 『無量壽經』에서는 49원으로 되었음.
- ⑦ 티벳어 번역본 『無量壽經』에서는 49원으로 되었음.
- ⑧ 『悲華經』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을 48원이라고 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번역자들에 따라서 48대원의 종류가 일

정하지 않고 다르게 되어 있다.²⁶⁾ 그러나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승개의 번역본인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널리 奉持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은 아미타불의 本願이라고 하면 당연히 48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²⁷⁾

일찍부터 신라 정토가들은 48대원에 주목하여 48원을 분류하고, 원명을 붙였으며, 十念論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48대원의 분류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중국의 淨影寺 혜원이다. 그는 『무량수경의소』에서 攝法身願·攝淨土願·攝衆生願으로 분류하였다.²⁸⁾ 그는 내용적으로는 3가지로 분류하였지만, 그 순서로는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후에 중국 정토가들은 혜원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를 신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法位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위의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현일의 저술에서 많은 부분이 인용되어 있으며, 현재는 에다니교수에 의해 복원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소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법위의 생애나 행적은 알 수 없지만, 원효보다는 다소 뒤의 인물로 보인다. 그는 원효보다 선배라고 하는 학자²⁹⁾와 동시대의 후배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³⁰⁾, 본인은 원효보다 조금 후배로서 7세기경에 활약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만약 법위가 원효보다 선배로서 願名을 붙인 저술을 먼저 찬술하였다고 한다면, 원효는 그의 저술인 『무량수경중요』에서 분명히 願名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효는 『무량수경중요』에서 48대원에 대

26)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337

27) 藤田宏達, 『原始淨土思想の研究』(岩波書店, 昭和45) p.379

28) 淨影寺慧遠, 『無量壽經義疏』 권상 (대정장37, 103, 중)

29) 惠谷隆戒, 『淨土教の新研究』(山喜房佛書林, 昭和51) p.61

30) 源弘之, 『新羅淨土教の特色』, 『韓國淨土教研究序說』(京都 尚文堂, 1978) p.10

해 자세히 논술하면서도 願名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효가 범위보다 선배로서 『무량수경중요』를 먼저 찬술한 것으로 추정된다.³¹⁾

法位는 『무량수경의소』에서 48대원을 ①願無惡趣, ②願色相各同, ③願得五道, ④願無貪着, ⑤願住定聚, ⑥願自身光壽無限, ⑦願聖衆及壽無限 ⑧願無惡名善名普聞, ⑨願往生者皆得, ⑩願衆生及七德滿嚴淨, ⑪願光明普益, ⑫願天人受樂, ⑬願自界他方大土獲益 등의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³²⁾ 이렇게 하여 48대원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정영사 혜원의 3분류법보다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玄一도 法位の 13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³³⁾

憬興은 범위보다도 한걸음 더 발전하여 48대원에 하나하나에 원명을 붙였다. 그는 제13원까지는 願字를 앞에 붙였으나 제14원부터는 願字를 뒤에 붙이므로 음율상 부르기 편리하게 하고 있다. 무심코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으나 원명을 붙이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경전상에 없는 원명을 作名한다는 것은 바로 48대원 하나하나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 간단히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경흥은 願字를 앞에 붙이고 정리해 나가다가 음율적인 리듬을 생각하였는지 제14원부터는 뒤에 붙이고 있다. 이는 48대원이 의례화하기 시작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다음으로 義寂은 48대원의 원명에서 願字를 모두 뒤에 붙이고 있다. 제1원을 경흥은 願無苦苦라고 하였으나 의적은 令國無惡趣願이라고 하였다. 제18원을 범위와 현일은 上三品이라고 하지만, 경흥은 攝上品願, 의적은 攝取至心欲生願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은 十念往生願

31)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340

32) 法位, 『無量壽經義疏』 권상 (한불전2, 11, 상)

33) 玄一, 『無量壽經疏』 권상 (한불전2, 232, 하)

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명의 변천은 우리나라 신라 정토가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다시 중국이나 일본에 전해져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오늘날 의식에서 장엄염불로서 사용하는 원명으로 정착된 것이다.

특히 한국정토교학에서는 48대원중에서도 제18원과 제19원, 제20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하였다. 범위와 현일과 경홍은 제18원을 상품원, 제19원을 중품원, 제20원을 하품원이라고 하였지만, 의적은 『무량수경술의기』에서 제18원을 하품하생이라고 하여 칭명염불의 十念을 강조하고 있다.³⁴⁾ 따라서 위의 세분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의적이 중국의 善導의 『往生禮讚』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칭명염불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정토가는 의적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제18원을 「攝取至心欲生願」 제19원을 「攝取修德欲生願」 제20원을 「攝取聞名欲生願」이라고 하여 칭명의 至心과 선근공덕의 修德과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는 것인 聞名을 왕생의 행으로 해석하였다.³⁵⁾

그런데 신라 정토가들이 특히 중시한 것은 제18원 중에서도 十念往生의 문제이다. 十念論은 『무량수경』의 제18원에서는 乃至十念이라고 하며, 『관무량수경』에서는 具足十念이라고 한다. 『무량수경』의 제18원을 번역하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至心)으로 믿고자 하며(信樂)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欲生我國) 십념 정도를(乃至十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하겠습니다(唯除五逆誹謗正法)³⁶⁾

34) 義寂, 『無量壽經述義記』 권중 (한불전2, 327, 중)

35)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 (大阪 東方出版, 1991) p.372

36) 한보광 역,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0) p.48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乃至十念을 십념정도라고 번역하였다. 우리말로 乃至라고 할 경우는 한번 내지 열 번이라고 할 때에 사용한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乃至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중간을 줄일 적에 쓰는 접속격 조사이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乃至十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번이라는 표현은 생략되었지만, 분명히 한번내지 열 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십념이지만, 『관무량수경』에서는 具足十念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에 선지식을 만나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해주며, 염불(念佛)하도록 가르침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염불할 경황조차도 없느니라. 그래서 선지식은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능히 생각할 수 없으면, 마땅히 무량수불을 부르도록 하여라(汝若不能念者 應稱無量壽佛).”라고 하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구족하게 열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80억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되느니라(如是至心令聲不絕具足十念稱南無阿彌陀佛稱佛名故於念念中除八十億劫生死之罪).³⁷⁾

여기서는 具足十念을 구족하게 열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그 공덕으로 80억겁의 생사의 죄를 소멸하여 하품하생의 극락에 왕생한다고 한다. 앞에서 신라의 다른 논사들이 제18원을 上三品으로 해석했으나, 의적이 下品下生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관무량수경』의 구족십념과 『무량수경』의 내지십념을 같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라의 정토가들은 『무량수경』의 乃至十念과 『관무량수경』

37) 상 동 p.248

의 구족십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극락왕생의 正因은 發菩提心이라고 하면서 염불은 왕생극락의 助因 중의 한 가지임을 밝히고 있다. 어디까지나 왕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발보리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염불은 간접적인 왕생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발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佛身과 佛土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절대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指方立相的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하여 관념적이고, 唯心的인 존재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육방제불이 증명하고 찬탄하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므로 難信之法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중생들이 믿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중생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부처님과 부처님들만이 알 수 있는 가르침이므로 중생들이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생들은 “오직 무조건 믿고”, “받들어 믿고”, “당연히 믿고”, “마땅히 믿는” 伏信, 仰信, 當信, 應信하라고 하였다.³⁸⁾ 이러한 믿음이 바로 발보심이므로 보리심을 내지 않고는 왕생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극락이나 아미타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면서 그곳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염불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이 어긋났기 때문에 왕생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十念論이 전개된다. 앞에서 말한 『무량수경』의 내지십념과 『관무량수경』의 구족십념에 대해서 각각의 논자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원효는 乃至十念은 隱密十念으로 보살이나 성현만이 가능한 십념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반 중생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나 보살이 은밀하게 실천하는 열 가지 생각이므로 은밀십념이라고 하였다. 그 열 가지의 실천방안은 慈心, 悲心 등의 『彌勒所問經』의 십념을 인용하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미륵소문경

38) 元曉, 『無量壽經宗要』(대정장37, 130,상)

』의 십념은 보살이 한 가지만 하여도 왕생이 가능하므로 내지십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무량수경』의 구족십념은 반드시 열 번 칭명염불을 하여야 하므로 아홉 번까지는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났으므로 顯了十念이라고 하고, 이는 칭명염불임을 말하고 있다. 칭명염불은 열 번 나무아미타불을 반드시 불러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80억겁의 생사죄가 소멸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무량수경』의 십념에서도 칭명염불의 십념도 포함시키고 있다.³⁹⁾

그러나 범위와 현일은 『무량수경』의 내지십념을 『미륵소문경』의 십념으로 十法起十念이라고 한다. 이는 열 가지를 함께 상속하여야 왕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제18원을 上三品願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관무량수경』의 구족십념은 一法起十念이라고 하여 칭명염불 한 가지만으로도 왕생이 가능하지만, 이는 중생들이 왕생하는 下三品の 극락을 왕생함을 의미하고 있다.⁴⁰⁾

그런데 경홍은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의 십념을 모두 칭명염불의 십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칭명염불로 보고 있다. 단지 의적은 『미륵소문경』의 십념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종적인 豎十念으로 보고, 칭명염불의 십념을 옆으로 향하는 橫十念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내지십념과 구족십념을 모두 稱名十念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홍과 의적임을 알 수 있다.⁴¹⁾ 이와 같이 신라정토가들은 십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창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토교학의 특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9)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大阪 東方出版, 1991), p.388

40) 상 동 p.384

41) 상 동 p.388

V. 唯心淨土 강조

그런데 통일신라 이후 선불교가 수용되면서 한국정토교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 이후 정토삼부경에 대한 주석서나 연구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선불교에 흡수되어 唯心淨土 自性彌陀로 정토교학이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정토와 아미타불을 유심적이고,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초는 신라의 원효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원효는 정토염불을 실천하고 칭명염불을 강조하였지만, 그의 『무량수경중요』의 서두에서 一心論的인 해석을 하고 있다. 『무량수경중요』에 의하면,

본 경의 大意를 말하자면, 무릇 衆生心の 性は 融通하여 걸림이 없어 크기는 허공과 같고, 깊이는 큰 바다와 같다. 마치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 本體는 평등하여 別相이 없음을 가히 얻으니 어찌 淨土와 穢土가 있으리요. 또한 큰 바다와 같으므로 그 本性은 潤滑하여 능히 인연을 따라 거역하는 바가 없으니, 어찌 움직이고 고요할 때가 없으리요. 내지 혹은 번뇌 바람으로 인하여 오탁에 빠져 輪廻轉生하기를 따르기도 하고, 고해의 풍랑에 빠져 오랫동안 流轉하기도 한다. 혹은 善根을 받들어 행하여 四流(四暴流)에 번뇌를 실어 보내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彼岸에 이르러 영원히 寂滅에 든다. 이러한 움직임과 적멸은 모두 큰 꿈과 같으니 깨닫게 되면 此土도 없으며, 彼土도 없느니라. 穢土와 淨國은 本來一心이며, 生死와 涅槃도 결국에는 둘이 아니다.42)

42) 원효 찬, 『무량수경중요』(대정장37, 125,하), “言大意者 然夫衆生心性 融通無礙 泰若虛空 湛猶巨海 若虛空故 其體平等 無別相而可得 何有淨穢之處 猶巨海故 其性潤滑 能隨緣而不逆 豈無動靜之時 爾乃或因塵風 淪五濁而隨轉 沈苦浪而長流 或承善根 載四流而不還 至彼岸而永寂 若斯動寂皆是大夢 以覺言址 無此無彼 穢土淨國 本來一心 生死涅槃 終無二際”

라고 한다. 그는 여기서 衆生心의 本性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중생심은 『기신론』에서 생멸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如來藏이며 一心인 것이다. 즉 일심을 유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생심은 깨닫지 못하면, 윤회하게 되고, 깨달으면 寂靜에 들게 된다. 중생심의 본체는 본래 평등하여 정도와 예토가 따로 없는 一心 그대로 이지만, 인연을 따라 윤회를 하게 되고, 연기론적으로 나뉠 때에는 각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本來一心에는 정도와 예토가 없고, 생사와 열반이 없지만, 중생의 모습이 있는 이상 구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무량수경』의 대의에서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효의 주장은 『아미타경소』에서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미타경소』의 서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본 경의 대의를 술하자면, 무릇 衆生心의 心은 相을 떠나고 性을 떠나기가 마치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기 때문에 相이 융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동쪽과 서쪽이 있으리요. 바다와 같기 때문에 性이 없음을 지키니 어찌 움직이고 고요할 때가 있으리요. 내지 혹은 染業으로 인하여 오락악세를 따라 오랫동안 유전하기도 하며, 혹은 청정한 인연을 받들어 행하여 四流를 끊어 영원히 寂靜에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적정은 모두 큰 꿈과 같으니 깨닫게 되면 流轉도 없고 寂靜도 없다. 穢土와 淨國은 本來一心이며, 生死와 涅槃도 결국에는 둘이 아니다.⁴³⁾

라고 한다. 『아미타경소』의 대의는 『무량수경중요』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효는 一心 二門 중에서 眞如門을 문제 삼

43) 元曉 술, 『佛說阿彌陀經疏』(대정장 37, 348, 상), “述大意者 夫衆生心爲心也 離相離性如海如空 如空之故無相不融 何有東西之處 如海之故無性是守 豈無動靜’之時 爾乃或因染業 隨五濁而長流 或承淨緣 絕四流而永寂 若斯動靜皆是大夢 以覺望之無流無寂 穢土淨國本來一心 生死涅槃終無二際”

은 것이 아니라 生滅門의 衆生心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즉 본 경의 대의는 衆生心の 心에 대하여 술하고 있다(述大意者 衆生心之爲心也)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중생심의 본성은 둘이 아니며, 정토와 예토가 본래 없는一心이지만, 무명번뇌가 인연을 만나 정토와 예토가 전개되며, 아미타불은 이를 제도하기 위하여 淨土를 시현하고 있음을 설하고 있다.

두 가지 주석서의 대의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먼저 『무량수경중요』에서는 “言大意者 衆生心性”이라고 하여 『무량수경』의 大意는 衆生心の 本性에 대하여 논하고 있음을 한 구절로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아미타경소』에서도 “述大意者 衆生心之爲心也”라고 하여 『아미타경』의 大意도 衆生心の 마음(心)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원효는 정토관련 주석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중생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극락세계의 시현이란 중생을 위한 곳이며, 범부가 중심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원효 정토교의 특색 중 하나는 凡夫衆生 중심의 정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衆生心이란 『기신론소』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一心이며, 如來藏이다. 그는 극락왕생의 주체는 여래장임을 밝히고 있다. 『무량수경중요』의 대의의 서두에서 衆生心の 本性을 밝히는 것이나 『아미타경소』의 서두에서 衆生心の 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들 모두는 衆生心인 一心과 如來藏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도 안심이 되지 않아 서두의 후미에서는 本來一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말은 바로 정토의 문제는 중생심의 一心에 달려 있으며, 왕생의 문제도 역시 一心에 있음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元曉 淨土敎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다름 아닌 一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효 정토교의 주된 관심은 一心인데, 이는 바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如來藏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원효는 淨土往生의 주체는 다름 아닌 一心이며, 이는 바로 如

來藏이 왕생함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원효 정토교의 특색 중 하나는 如來藏 往生說이며, 發菩提心正因說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또한 원효는 『기신론』의 여래장사상에서 대승불교의 유식과 중관의 상반되는 논리적인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를 『기신론』에서 찾았으며, 그 대표적인 단어가 “一心”이다. 그는一心 즉 如來藏思想 속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如來藏緣起論이다. 그 결과 신라는 三國統一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고 새로운 평화를 되찾아 사회를 안정시킨다. 이것이 한국불교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각 시대마다 새롭게 부각되어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게 된다. 고려시대의 普照는 이를 “眞心”이라고 하였으며, 몽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상적인 근간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西山大師는 이를 “唯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근세의 韓龍雲은 “님”이라고 하였고, 龍城스님은 “大覺”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분들은 일제치하에서도 불교의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민족의 나갈 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래장사상의 흐름은 한국불교사에 큰 줄기이며,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如來藏緣起法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⁴⁵⁾

한편 고려의 건국을 선불교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 즉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卽心卽佛說은 중생이 부처이며, 신하가 임금일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신라의 골품중심의 사회에서 성골이나 진골이 아닌 王建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고려 건국을 합리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一心 혹은 중생심이고, 여래장이며, 唯心

44) 한보광, 「정토학의 일심사상」, 『원효학연구』 6집 (원효학연구원, 2001), pp.98-100

45) 한보광, 「한국불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7집 (한국정토학회, 2004), p.182

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 唯心淨土思想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제4대 光宗때 부터이다. 고려 광종은 고려왕실의 강력한 중앙집권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국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광종은 지방호족과 연계된 구산선문의 진출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을 겸비한 법안종의 수행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중국 법안종의 永明延壽문하에 智宗을 비롯한 36명의 스님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냈다. 그는 영명연수의 저술을 읽고 제자의 예를 표하면서 법안종의 念佛禪을 도입코자 하였다. 당시 영명연수는 『唯心訣』·『萬善同歸集』·『宗鏡錄』 등을 저술하여 祖師禪의 殺佛殺祖하는 강력한 이미지의 수행방법을 탈피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선의 수행방법은 자력신앙 중심으로 종교성이나 신앙성을 소홀하게 할 수 있었다. 고려가 안정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제도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영명연수의 자력과 타력을 겸비하는 염불선은 광종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광종은 국비유학승을 파견하여 唯心淨土 自性彌陀를 주창하는 念佛禪을 도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물론 智宗이 유학을 가기 이전부터 고려승들은 法眼문하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종의 귀국 후 고려에는 법안종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九山禪門의 승려들 중에는 조사선보다 염불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에 義天大覺國師가 친태종을 개창할 때에 이들은 친태종으로 합류하였다고 한다.⁴⁶⁾

고려 普照知訥이 『定慧結社文』을 지으면서 영명연수의 『만선동귀집』의 많은 부분을 재인용한 것으로 볼 때 그도 염불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유심정토사상을 수용한

46) 한보광, 延壽門下の高麗修學僧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2輯 1號 (日本印佛學會, 1983)

사람은 보조지눌이다. 그는 타력적인 정토염불보다 유심정토를 강조하였다.⁴⁷⁾ 그 후에는 太古普愚, 懶翁惠勤, 조선의 涵虛得通, 智崑, 虛應普雨, 淸虛休靜, 四溟, 草衣, 蓮潭有一, 龍城震鍾 등 오늘날까지 계승되어오고 있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 정토사상의 특색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토사상을 중심으로 논하다가 보니 신라시대의 정토논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정토사상을 논한 정토관련 주석서가 신라시대의 자료뿐이라고 하는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정토수행이나, 정토신앙, 정토문화는 제외하고 오직 정토사상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므로 한계성이 있었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정토사상은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골고루 연구되었다. 일부학자들이 한국은 『관무량수경』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라시대의 대부분의 정토교가들은 정토삼부경을 골고루 다루고 있으나, 단지 현존하는 자료로는 『관무량수경』의 주석서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심지어 『반주삼매경』의 연구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적인 기반위에 한국의 만일염불결사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48대원을 중시하였다. 48대원의 호칭한 것은 정토사상의 일대변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원명의 호칭이

47) 한보광, 「知訥の『定慧結社文』における淨土觀」, 『印度學佛敎學研究』 47輯 1號 (日本印佛學會, 1998)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에서는 장엄염불로 남아 널리 애송되고 있다. 즉 48대원이 의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는 十念을 중시하였다. 특히 48대원 중에서도 제18원과, 제19원, 제20원을 중시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십념염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였다. 십념은 『무량수경』의 乃至十念과 『관무량수경』의 具足十念에 대하여 논사들에 따라서 그 해석법이 달랐다.

넷째는 唯心淨土 중심의 念佛禪을 중시하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 선불교의 번창으로 정토교학은 자취를 감추고, 선종에 흡수되어 선 수행의 방편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중국의 永明延壽의 염불선이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어찌보면 한국불교단 순한 선종이 아니라 염불선 중심의 法眼宗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조선 淸虛休靜대에 까지 법안종의 염불선의 正法眼藏이 계승되어왔다.

다섯째는 정토교학과 신앙이 널리 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淨土宗 이라는 종파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점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토사상과 신앙이 너무나 보편화되다가 보니 종파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 정토사상의 특색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더 추가하고자 한다.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한국정토사상을 중심으로 논하다가 보니 신라시대의 정토논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정토사상을 논한 정토관련 주석서가 신라시대의 자료뿐이라고 하는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정토수행이나, 정토신앙, 정토문화는 제외하고 오직 정토사상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므로 한계성이 있었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정토사상은 정토삼부경 중심으로 끌고루 연구 되었다. 일부 학자들이 한국은 『관무량수경』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라시대의 대부분의 정토교가들은 정토삼부경을 끌고루 다루고 있으나, 단지 현존하는 자료로는 『관무량수경』의 주석서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심지어 『반주삼매경』의 연구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적인 기반위에 한국의 만일염불결사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48대원을 중시하였다. 48대원의 호칭한 것은 정토사상의 일대 변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원명의 호칭이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에서는 장엄염불로 남아 널리 애송되고 있다. 즉 48대원이 의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는 十念을 중시하였다. 특히 48대원 중에서도 제18원과, 제19원, 제20원을 중시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십념염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였다. 십념은 『무량수경』의 乃至十念과 『관무량수경』의 具足十念에 대하여 논사들에 따라서 그 해석법이 달랐다.

넷째는 唯心淨土 중심의 念佛禪을 중시하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 선불교의 변창으로 정토교학은 자취를 감추고, 선종에 흡수되어 선수행의 방편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중국의 永明延壽의 염불선이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어찌 보면 한국불교단 순한 선종이 아니라 염불선 중심의 法眼宗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조선 淸虛休靜대에 까지 법안종의 염불

선의 正法眼藏이 계승되어왔다.

다섯째는 정토교학과 신앙이 널리 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淨土宗 이라는 종파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점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토사상과 신앙이 너무나 보편화되다가 보니 종파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제어 】

칭명염불, 唯心淨土 自性彌陀, 具足十念, 乃至十念, 원효, 十念往生願, 정토종,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반주삼매경, 장토삼부경

Peculiarities of the Pure Land in Korean Buddhism

Han Tae-shick

(Professor, Dongguk Univ. in Seoul)

This thesis revolves around the idea of Pure Land dating back to the Shilla era in analyzing that in Korean Buddhism.

Firstly, the idea has been researched a lot, centered around the Three Sutras of the Pure Land. It is hard to agree with those scholars who say Korea neglected the Amitāyur-dhyāna-sūtra, because it is just that the data and material remaining now rarely include the tome's commentary, not that those followers of the idea during the era disregarded any of the three sutras. Moreo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had been researches and studies on the Pratyutpanna-buddha-saṃmukhavasthita-samādhi-sūtra. Those are thought to constitute Pure Land Buddhism of the country.

Secondly, the idea has emphasized the 48 Great Wishes of Amitaba, whose denomination was truly a revolution of the idea. The song is still widely recited in Korea as a Buddhist prayer. Judging from this, it seems that the idea of Pure Land contributed to the 48 Great Wishes' becoming part of Buddhist practice in Korea.

Thirdly, the idea has focused on the Ten Thoughts and, especially, the 18th, 19th and 20th among the 48 Great Wishes while giving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of the Prayer of the Ten Thoughts.

The interpretation of the Ten Thoughts differed depending on who interpreted it.

Fourthly, the idea has aimed towards the invocatory Zen of the Mind-Only Pure Land. Since the Goryeo Dynasty, Zen Buddhism had prospered, driving out the study of the Pure Land or absorbing the idea as a way to practice Zen, until YongMing YanShou's invocatory Zen found its way to Korea from China to influence Korean Buddhism up to now. In this vein, Korean Buddhism might not be a simple Zen Buddhism but one revolving around invocatory Zen. This peculiarity lasted until the Joseon Dynasty.

Fifthly, Korean Buddhism could not see the sect of the Pure Land sect forming in spite of the wide-spread teachings and belief of the idea. It seems that was because of, as mentioned earlier, the belief's and idea's being too popular that stemmed a sect from forming.

【 Key words 】

invocation of nang mo-ahr amitaba, Mind-Only Pure Land, Jaseong Mita, Gujok Shimnyum, Naeji Shimnyum, Wonhyo, Shimnyum Wangsengwon, Pure Land sect, Larger Sutra, Amitāyur-dhyāna-sūtra, Amita Sutra, Pratyutpanna-buddha-saṃmukhavasthita-samādhi-sūtra, Jangto Sambugyeong

【 참고문헌 】

- 『無量壽經』 (대정장 12)
『觀無量壽經』 (대정장 12)
『阿彌陀經』 (대정장 12)
『般舟三昧經』 (대정장 13)
한보광 역,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0)
『高僧傳』 권6 釋慧遠(대정장 50)
淨影寺慧遠, 『無量壽經義疏』 권상 (대정장 37)
元曉, 『無量壽經宗要』 (대정장 37)
法位, 『無量壽經義疏』 권상 (한불전 2)
玄一, 『無量壽經疏』 권상 (한불전 2)
義寂, 『無量壽經述義記』 권중 (한불전 2)
『三國史記』
『函虛堂得通和尚語錄』 (한불전 7)
황수영 편,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76)
黃壽永 著,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1973)
藤田宏達, 『原始淨土思想の研究』 (岩波書店, 昭和45)
惠谷隆戒, 『淨土教の新研究』 (山喜房佛書林, 昭和51)
佐藤哲英 著, 『叡山淨土教の研究』 (百華苑, 昭和 54)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研究』 (大阪 東方出版, 1991)
김영태, 「日本諸錄中の 韓國佛教撰述書目」 『佛教學報』 1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6)
源弘之, 「新羅淨土教の特色」 『韓國淨土教研究序說』 (京都 尚文堂, 1978)
김영태, 「삼국시대 미타신앙의 수용과 그 전개」 『한국정토사상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5)
채인환, 「신라시대의 정토교학」 『한국정토사상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5)

- 한보광, 「정토학의 일심사상」 『원효학연구』 6집 (원효학연구원, 2001)
- 한보광, 「한국불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7집 (한국정토학회, 2004)
- 한보광, 「延壽門下の高麗修學僧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2輯 1號 (日本印佛學會, 1983)
- 한보광, 「知訥の『定慧結社文』における淨土觀」 『印度學佛教學研究』 47輯 1號 (日本印佛學會, 1998)

논문투고일 : '10. 3. 14 심사완료일 : '10. 05. 28 게재확정일 : '10. 06. 14